

주의 승천 대축일

제1독서 : 사도 1, 18-11

제2독서 : 에페 1, 17-232

복 음 : 마르 16, 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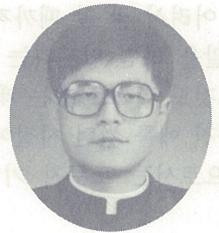
# 숲 정 이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라”

(마르 16, 15)

강  
론

## 복음의 메아리



여혁구 신부/사목국 부국장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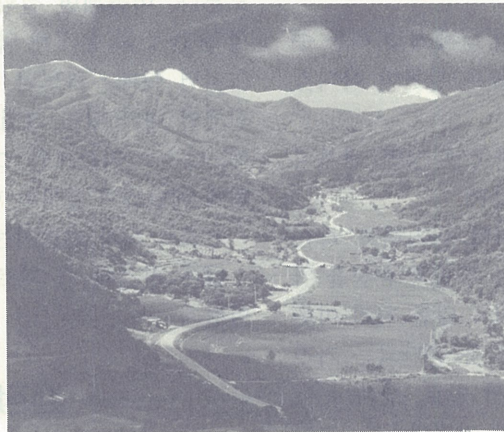
복음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구원이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모든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촉매역할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뒤바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를 과거나 지금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지역적인 방송 또는 부활, 성탄을 기해 한시적으로 보내는 특집방송 내지 큰 행사 때에만 이에 의지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영되는 일상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소극적으로 방관해 왔고,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복음적 여지를 외면했습니다.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교회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승천 대축일인데, 승천이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 승천의 깊은 뜻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던 존재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와 늘 함께

있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변화입니다. 지상의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모습을 달리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지역적인 선포에서 벗어나 홍보매체를 통한 대중적인 선포로 그 변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주변의 이웃들을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데에만 만족하지 말고 다양하게 널려 있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자생적 힘으로 교회를 세운 그 기반, 그 좋은 텃밭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게으름만 피워서는 안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를 신앙인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을 걷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무지, 의혹, 오해 등을 방치해서도 안되겠습니다.

메아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보다 더 높은 산을 향해 외쳐야 울려 퍼지는 것이지만, 복음의 메아리는 ‘높은 산’ 대신 일상의 삶에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외쳐 댈 때 더 넓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은 스승의 말보다는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지만(현대의 복음선교, 41항), 그 좋은 표양도 ‘지붕 위에서’(마태 10, 27)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정인섭(안드레아)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주님이 계시기에

# 사랑을 나눕니다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해 있는 팔복동 주택지, 참기름 냄새가 솔솔 풍기는 방앗간 옆골목에 '나누리 공부방'이 자리하고 있다. 현관문을 열자 때문은 운동화가 올망졸망 들어차 발 들여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방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생들이 음악수업을 받고 있었다. 양말 바닥이 새까만 사내애들 들어 선생님은 아랑곳 없이 눈을 치뜨고 주먹질을 하고 있다.

“선생님, 이것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방에서 공부하던 여자아이가 유난히 들락거리며 이순남(수산나)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댄다. 아무리 엉뚱한 말이라도 일일이 답해주는 수산나 선생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허물없이 편안해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곳 팔복동은 공장 지역이어서 삼십대의 맞벌이 부부가 많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집 밖으로 나돌 수 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의 학습 발달을 돕고, 가정에서 부족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어 수산나 선생님이 교구 사회복지과의 지원으로 '나누리 공부방'을 마련한 지 삼년째가 된다. 막상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은 했지만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하시리라는 신앙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점차 자리가 잡혀가면서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열다섯명의 자원 봉사자 선생님이 번갈아 아이들의 학습을 맡아 준다. 초등 학교 어린이가 39명, 중등부 학생 9명이 고정적으로 오고 있고 친구를 따라오는 어린이도 제법 있다. 평화동으로

이사간 아이가 지금도 찾아온다. 처음 공부방을 찾아 왔을 때는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던 아이가 글을 깨우치고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수산나 선생님은 가장 기쁘다. 아이들을 맡겨 놓고도 찾아와 볼 시간이 없는 어머니들에게 수산나 선생님은 가끔 전화를 걸어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머니들의 어려움도 함께 나눈다.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이곳에 와 선생님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쏟아 놓는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일부인 방 두 개 짜리 셋집은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기엔 너무나 비좁다. 그나마 교구 사회복지회 소속 사랑의 다리 회원들이 내는 영세민 재정 복지 후원금과 봉동의 현대자동차 신자 모임에서 매 달 보내주는 성금이있어 근근히 운영하고 있지만, 수산나 선생님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 조립식 주택이라도 좋으니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과 기구를 갖춘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은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지금까지 나누리 공부방을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 꿈도 이루어 주시리라는 희망으로 수산나 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 한다.



나누리 공부방 어린이들과 자원봉사선생님



특집

# 나는 어떤

얼마전 친척집을 방문하였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아이들은 성격도 참 밝았고 신세대다운 감각으로 모르는 분야가 없이 박학다식(?)해 보였다. 저녁을 먹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자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켰다.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친척들을 앞에 두고 TV시청이라니 자못 못마땅했지만 부모들이 가만 있으니 하는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합세한 텔레비전 시청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현란한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도 좋아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좋아서 저러니 부모들도 막지 못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시청하지도 않는 쇼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니 시간낭비로만 여겨졌다. 친절하게도 텔레비전에서는 발음을 알아듣기 어려운 노랫말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보여주었다. 가만히 읽어 보니 그 노랫말에 단김 말들이 요즘 신세대들의 감각과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노래말뿐만 아니라 율동, 의상, 조명과 가수의 몸놀림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혼자서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로 여겼던데 이 아이들과 함께 보니 그들의 감각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되는것 같아서 끝까지 가서는 그리 지루하지 않았다. 그 가수를 보고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 역시 나에게서는 친척집의 귀여운 자녀들이니 자연스레 그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에 관심이 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던 그 신세대 감각과 잡다한 상식들이 다분히 텔레비전에서 배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정말 텔레비전을 재미있어 했다. 그리고나서 그 가족은 주말연속극 '첫사랑'과 '9시 뉴스'를 시청했다. 결국 나의 제재에 의해서 그날 저녁 텔레비전은 9시 40분 스포츠뉴스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집 아이들은 어떻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는 부모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또 어떤 시청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1960년대 부터 교회는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대중매체를 하느님의 선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매 홍보주일을 통하여 이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 가정과 이웃이 보다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이 고귀한 하느님의 선물을 잘못 활용하여 가정의 대화가 끊어지고, 주일학교, 본당활동에 참여하는 것 까지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 신자들에게 묻고 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족들의 텔레비전 시청행위가 이런 측면에서 재 점검되고 좀더 절제되고

## (주)이삭은돌침대 파워스톤

수맥방지 및 치료용 건강돌침대  
(공업진흥청 전자파실험필,EMI)  
박천운(베드로), 임선재(테레사)  
전남북총판  
☎ (0652) 251-9836~7  
휴대폰 011-651-8124

##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진진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조음과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 침대용 전시장

◎ 목재침대  
• 싱글 : 110,000원  
• 더블 : 160,000원  
• 쿤 : 300,000원  
이레가구산업  
김미숙(안젤라)  
완산구 삼천동(풍남중 건너편)  
☎ 225-2368, 5328

##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가 도입, 입원실  
김희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 시청자인가?



이 영 숙(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AFI회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봄이 어떨까? 먼저 유아기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부모가 유아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기의 아동이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은 어떤 이미지 혹은 음향에 충격을 받게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아기의 아동에게 자기가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어른들은 아동의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은 자기의 TV경험을 어른과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반드시 계획 시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있는 'TV는 사랑을 싣고'를 보기로 결정했으면 그 프로그램이 끝남과 동시에 스위치를 끄는 연습을 하는것은 정말 중

요하다. 이는 아이들에게 바른 시청습관을 키워주는 방법의 기초과정이다.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부모와 함께 선택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난후에도 마냥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무절제한 시청 습관보다는 'TV를 켜야 할 때와 꺼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것 그것이야말로 성숙된 시청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습관이 정착되면 다음단계로 자녀들과 함께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등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수 있으면 아주 바람직하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갖고 부모와 자녀가 허심탄회하게 TV에서 보여준 다양한 이슈를 논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종교교육, 가정교육이 또 있을까?

텔레비전은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많은 재미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물건이다. 그러나 부모가 무분별하게 텔레비전을 보는 'TV 중독자'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홍보주일에 한번쯤 나는 어떤 시청자인지 생각해 보자.

## 요십이 (239) 김병오



## 직원 모집

1. 천호 사무장(남), 교구청 사목국 직원 (여) 2. 영세한지 5년이상,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3. 서류: 자필이력서(사진, 연락처명기), 세례증명서 자격증사본, 본당 신부추천서 여-기초부기가능, 전학년 성직증명서 남-운전면허 1종 소지자
4. 접수마감: 97. 5. 20(화)
5. 접수처: 교구청 사무처(0652) 85-0041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 자격: 영세받은지 3년이상, 만 23~40세 남녀, 봉사활동의 경험이 있고 외국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
- 때: 5월 18일(일) 오후 2시~5시
- 장소(광주)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 문의: (062) 371-5823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1일포집

1. 일시: 5월 25일(일) 오전10시~오후 5시
2. 장소: 부산 부곡동 본원
3. 신청: (051) 514-1773(5월 21일까지)
4. 준비물: 미사준비, 회비 3,000원
5.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 LG에어콘

- 97년 신제품 에어컨 예약중!
- 설치하는 지금, 대금은 5월부터

(주) 삼화공조

☎ (0652) 241-2000

##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 · 이해경(글라리아)

북전주 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254-263

차량대여 및 임대전문 영업개시

## (유) 국민렌트카

박 일 천(요한)

신역에서 진안선 중간 럭키아파트 앞

☎ 본사: 242-4442, 242-4717~9

군산영업소: (0654) 467-6578~9



사 목 단 상

어떤 경우



최용준 신부/대야성당

어느날 사무실에 들렀다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행색이 남루한 한 노파가 사제관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얼핏보아 초라하고 어설픈 모습이 구걸하러 온 사람같았다. 별 생각없이 계속 그 모양새를 지켜보는데 병든 몸에 힘겹게 걷는 듯 했고 뒤통거리는 양손에는 새까만 보자기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다. 순간 나는 사제관에 가서 헛탕을 치고 돌아나오는 길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나는 주방 데레사씨한테 단단히 당부해둔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건 낯모르는 사람이 와서 신부님을 찾거든 구걸하러 온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니 눈치껏 잘 처신해 돌려보내라고 했다. 설혹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말해오더라도 99%는 거짓말이니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아닌게 아니라 여러차례 그런경우를 겪고나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잘 처리해 주었다. 정히 힘들면 사무실로 보내라고 했다.

예측했던대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노파가 들어왔다. 여기가 사무실이냐면서 자기는 대야성당 신부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힘겹게 찾아온 자기에게 물한모금 안주고 들어오란 소리도 안하고 사무실로 가보라고 했다면서 서운해 하는 것이었다. 데레사 아주머니가 몹시도 야속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놀러운 사람처럼 탄전을 부리고 있었다. 사무장이 왜 오셨냐고 용건을 묻는다. 노파가 말하기를 “대야 성당 신부님의 제자 두분이 하얀 차를 타고 와서 가끔 위로도 해주고 여러가지로 도와 주어서 그 공을 갚으려 큰 맘먹고 나섰던 길이다”라고 했다. 알고보니 그 손에 들렸던 보자기는 신부와 그 아주머니들한테 줄 선물이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연은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사시는 곳도 그렇게 하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우리 성당 신자중에서는 짐작이 갈만한 사람이 없었다. 혹시 잘못 들으신거 아니냐고 되물어 보았지만 대야 성당이라고만 한다. 정 그렇다면 사실을 알아본 후 전달해 드릴테니까 맡겨 놓고 가시라고 하자 이번에는 할머니가 거절했다.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몹씨 개운치 않는 모습으로 보파리를 다시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잘 가시라는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고개만 가우뚱거릴 뿐이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초라한 노파가 구걸하러 왔을 거라는 우리의 짐작과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사실이다.

얼마후 레지오 회합의 강복을 주러 한 회합실 문을 열었다. 강복을 주고 나니 한 단원이 이야기를 했다. 자기들이 활동을 다니던 할머니한테 갔더니 여차여차해서 성당엘 갔더니 너무 박절하게 대해서 몹씨 서운해 하더라는 것이었다. ‘아뿔사! 우째 이런 일이……’ 나는 머리를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그때의 상황을 재차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차후 함께 방문해 보기로 하였지만 그날 그 할머니의 눈에 비친 사제관과 사무실 그리고 성당 신부에 대한 인상은 어땠을까? 완전한 실망감으로 돌아서는 그발길에 나는 분명 1%를 믿지 못한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다.

푸른광고기획

- 개업, 회갑, 각종 행사 사은기념품
- 청첩장, 광고지, 봉투, 명함, 스티커
- 프랑카드, 상패, 명패, 트로피 등

정 의 평(라우렌시오)  
서 영 란(마 리 아)

☎ (0652) 225-8147  
휴대폰 011-657-8147

군산 태광당 약국 한약  
태광당 건강원 각종중탕

군산 경장동 리베라장 여관 옆으로 이전

이 원 식(루도비코)  
최 순 정(데 레 사)

☎ 445-1800, 42-2800

김종구 내과 의원

(심장, 소화기, 류마티스 내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5월 3일 개원예정

원 장 : 김종구(스테파노)  
내과전문의 : 백화연(올리엠티)

전동 행복예식장 건너편  
동양한의원 2층  
☎ 88-5874

노 송 분 재

소나무, 단풍, 소사나무등

송 군 자(오티리아)

소양초등학교 뒤

☎ 244-7045



# 교구 소식

## ◆새 사제 연수

- 때 : 5월 15일(목)
- 장소 : 교구청

## ◆교리교사의 날 행사

- 때 : 5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윤호관

## ◆구역(반)장 교육(2차)

- 익산남·북지구
- 때 : 5월 1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영등동 성당

## ◆군산사회교정 사목 후원회 미사

- 때 :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민족의 화해와 남북통일을

- 위한 기원미사
- 때 : 5월 13일(화)
- 장소 : 임진각
- 주최 : 푸른군대

## ◆선택 월모임(체육대회)

- 때 : 5월 18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해성중·고등학교

## ◆교구 빈첸시오 중앙이사회

- 때 : 5월 18일(일) 오후 2시
- 장소 : 인후동성당

## ◆가톨릭 방송인 언론인회 피정

- 때 : 5월 24일~25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가톨릭 문우회 피정

- 때 : 5월 14일
- 장소 : 치명자산 성당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5월 18일(일) 오전 7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출발

## ◆'97 성령강림 성서대피정

- 때 : 5월 12일~13일
- 장소 : 전동성당
- 주제 : 신구약전반 중요부분
- 강사 : 강요한 신부
- 문의 : 87-2722(성령쇄신봉사회)

## ◆성직자 모지 미사

- 때 :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치명자산

## ◆사제인사발령

- 오정선 신부
- 계시던곳 : 창인동 본당
- 가시는곳 : 필리핀 E.A.P.I 연수

## 성 소 모 임

### ◆동정성모회

- 때 : 6월 7일~8일
- 장소 : 동정성모회 대전 본원
- 문의 : (042) 254-6530

### ◆인보성체 수도회

- 때 :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 장소 : 중노송동 본원
- 문의 : (0652) 84-3231

### ◆성바오로딸 수도회

- 때 :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 장소 : 바오로딸 서원
- 문의 : (0652) 252-3398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날씨가 더워지면서 캔음료수의 소비가 늘어갑니다. 알미늄캔을 재생 활용하면 각종 기계 부품이나 주방 용기 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음료를 마시고 난 알미늄 캔은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가운데를 뚫고 양쪽을 뚫아 납작하게 주그러뜨린 후 부피를 줄여 모아서 버립니다.

»» 감동이 있는 비디오 ««

## 마이크로 코스모스

인간에겐 아직 미지의 세계인 곤충들의 생활을 섬세하고 예리한 카메라의 눈을 통하여 들여다보며 생태계의 신비를 만나게 해 주는 작품이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곤충들의 삶을 통하여 자연의 신비를 새롭게 느끼게 해 준다.

감독 : 끌로드 누리드시니 촬영 : 끌로드 누리드시니, 마리 페레노

음악 : 브루노 쿠울 레이즈 상영시간 : 1시간 14분

## 직 원 모 집

1. 모집부문 : 일반사무직여직원 1명
2. 자격 : 25세미만의 미혼자, 고졸이상 (98년도 졸업예정자 포함), 부기2급, 주산2급, 워드3급이상 자격증소지자
3. 서류 : 자필이력서(사진) 1통, 최후학교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
4. 제출기간 : 5월 12일~16일
5. 문의 : (0652) 88-0194 전주대건선협

## 성심미술

유치부·초등부·취미반

이수정(마리안나)

여양 우미아파트 상가 2층

☎ (0653) 835-0058

무방부, 무색소, 무공해, 건강발효식품  
울의, 오이, 무우 장아찌(나나스께)

## 토 립 식 품

대표 : 정 작(빅토리아노)  
강 우 창(마 리 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58-1

☎ 211-5277

호출 015-6603-2022

## (주) 청풍 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 대회 환경부문  
7회 연속 금상 수상 • 담배연기, 냄새,  
세균, 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  
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필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종기(아빨리나리스)

이현자(세 시 리 아)

☎ (0652) 251-0022

## 문 병 원

직장여성을 위한 공휴일이 없는 병원  
(평일 후9시, 토요일 후5시, 공휴일 후1시)

병 사 장 문지식(레나도)

병 원 장

사무이사 마취과장 기순중(안젤라)

☎ 82-8833~6, 84-2918

## 순창성당 김치

천연 양념만으로 맛을 냅니다.  
포기김치, 알타리, 열무, 백김치,  
돌산갓김치, 깍두기

채래식품-원장, 간장, 고추장

전화로 주문 배달

☎ 군산 (0654) 452-4939

익산 (0653) 52-5300



